

북한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해정

1. 개요

남한의 취약한 수급 구조

남한은 에너지 광물자원의 9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광물자원의 국제 수급 여건 불안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남한의 광물자원 수입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03년 86.0억 달러 → 2007년 185.7억 달러, 2.2배 증가). 2007년 남한의 수입 총액은 3,568.5억 달러로 이 가운데 광산물 수입액은 185.7억 달러(전체 수입액의 5.2%)를 차지하고 있다.¹⁾

< 남한의 광산물 수입액 추이 >

(단위 : 억 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입 총액	1,788.3	2,538.4	2,612.4	3,093.8	3,568.5
광산물 수입액	86.0	121.7	122.8	157.9	185.7
비중(%)	4.8	4.8	4.7	5.1	5.2
전년비 증가율(%)	23.8	41.5	1.0	28.6	17.6

자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7년도 광산물 수급 현황』, 2008년.

북한의 자원 규모

한편, 북한은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유용광물 200여종)²⁾. 이중 마그네사이트 60억 톤(세계 2위), 흑연 200만 톤(세계3위), 철광 50억 톤, 중석 25만 톤 등 광물이 세계적 규모로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그밖에 남한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아연, 동, 인회석 등도 풍부하다. 북한의 개발 경쟁력 있는 광종은 약 20여 종으로, 그 잠재가치는 4,115조 원(2007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남한 220조 원의 약 18.7배로 추정된다.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7년도 광산물 수급 현황』, 2008년. pp. 240~246 참조.
2) 최경수, “북한 단천지역 광산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전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북한연구학회 공동 개최 세미나, 『신남북경협과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제』, 2007년 11월 23일 발표 자료 참고.

< 남북한 주요 광종 매장량 및 잠재가치 비교 >

광종	기준품위	단위	매장량		잠재가치(억 원)		남한 수입 의존율(%)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무연탄	각 급	억 톤	45	13.7	3,402,945	1,036,007	65.34
갈탄	각 급	억 톤	160	-	10,077,760	-	100.00
금	금속기준	톤	2,000	41	417,300	8,555	93.04
은	금속기준	톤	5,000	1,582	20,400	6,455	94.76
동	금속기준	천 톤	2,900	56	22,500	435	100.0
연	금속기준	천 톤	10,600	404	59,437	2,262	99.9
아연	금속기준	천 톤	21,100	588	153,869	4,288	100.0
철	Fe 50%	억 톤	50	0.2	2,135,600	8,542	99.39
중석	WO ₃ 65%	천 톤	246	127	19,858	10,252	89.1
몰리브덴	MoS ₂ 90%	천 톤	54	22	12,156	4,952	99.05
망간	Mn 40%	천 톤	300	176	406	238	100.0
니켈	금속기준	천 톤	36	-	11,698	-	100.0
인상흑연	F.C 100%	천 톤	2,000	121	7,463	452	99.80
석회석	각 급	억 톤	1,000	99.7	10,923,000	1,089,023	1.24
고령토	각 급	천 톤	2,000	106,335	332	17,671	11.24
활석	각 급	천 톤	700	8,152	875	10,190	92.20
형석	각 급	천 톤	500	477	667	637	100.00
중정석	각 급	천 톤	2,100	842	1,636	656	100.00
인회석	P ₂ O ₅ 30%	억 톤	1.5	-	116,250	-	100.00
마그네사이트	MgO 45%	억 톤	60	-	13,762,860	-	100.00
총계					41,147,012	2,200,615	-

자료 : 1) 대한광업진흥공사, 『북한 광물자원 개발현황』, 2008.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7년도 광산물 수급 현황』, 2008.
 주 : 잠재가치는 2007년 경상가격 기준.

연구의 목적

전 세계가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광물자원 협력 사업 분야를 외국 자본들이 선점할 수 있어, 대응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확대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대북 지원 및 대북 투자를 통해 북중 간의 경제적 연대 및 관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각국의 대북 광물자원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투자의 저해요인을 분석하여 남한의 대북 투자 협력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주요국의 북한 광물자원 개발 현황

개요

국가별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북한 전역에 걸쳐 관심을 기울이며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투자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EU 등 기타 국가들은 본격적인 투자에 앞선 간접 투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남한의 경우, 합작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투자를 위한 조사에 나서고 있으나 북한의 폐쇄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국가별 대북 광물자원 개발 현황 >

	특징	주요 투자지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적극적인 투자 양상 - 개발 경쟁력 있는 광종의 광산 개발 중점 투자 · 북한 전역에 걸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합영 형태의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경북도 무산 철광 - 양강도 혜산 동광 - 평안북도 용등탄광(무연탄) - 평안남도 용흥 몰리브덴광 - 황해북도 은파 연·아연광 - 함경남도 상농 금광 - " 덕성 철광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격적인 자원 개발 투자에 앞선 간접 투자 형태 · 영국 : 자원 개발 펀드 조성 · 프랑스 : 평양 상원시멘트사 지분 50% 매입 · 독일 : 평안북도 동창광산 형석 투자 관심 · 스웨덴 : 함경남도 검덕광산 아연 투자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안남도 검덕 아연 광산 - 평안북도 동창 형석 광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 합영회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해남도 금산 금광
남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작 형태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기 생산 제품의 단순 반입 · 반입 규모도 많지 않으며, 2008년 들어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해남도 정춘 흑연 광산 - " 풍천 흑연 광산 - " 아양 석회석 광산 - 함경남도 검덕 연 아연 광산 - " 룡양 마그네사이트 광산 - " 대흥 마그네사이트 광산

중국의 개발 현황

중국은 북한 전역에 걸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북 광물성 수입품³⁾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의 개발 경쟁력 있는 광종으로 평가되는 금, 석탄, 철광석, 몰리브덴 등의 광산 개발을 중심으로 북한 전역에 걸쳐

3) 본 연구에서 광물성 생산품은 HS 26(광, 슬랙 및 회), HS 27(광물성 연료, 광물유), HS 79(아연과 그 제품)으로 규정하기로 함.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합작보다는 합영을 통한 투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광산 개발 및 석탄화학 분야의 협력, 철광 자원 협력을 위한 제철소 설립 등을 중심으로 광물자원 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 광물투자는 2007년 7,210만 달러를 기록하여 총 2억 1,74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 중국의 대북한 광물 투자 >

(단위 : 만 달러)

	2004	2005	2006	2007	합계
투자액	3,000	5,000	6,530	7,210	21,740

자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재인용, “동방의 엘도라도”, KBS 시사기획 ‘쌈’ 2008년 10월 21일 방영

2002년 이후 중국의 대북 광물성 생산품의 수입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중국의 대북 광물성 생산품 수입액은 3억 4,403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5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 중국의 대북 광물성 생산품 수입액 비중 추이 >

(단위 : 만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교역액	73,817	102,293	138,521	158,034	169,960	197,397
중국의 대북 수입액 (%)	27,069 (36.7%)	39,534 (38.6%)	58,570 (42.3%)	49,916 (31.6%)	46,772 (27.5%)	58,152 (29.5%)
중국의 광물성 생산품 수입액 (%)	2,019 (7.5%)	4,573 (11.6%)	14,781 (25.2%)	21,835 (43.7%)	23,005 (49.2%)	34,403 (59.2%)

자료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호.

주 : 전체 교역액 대비 수입액의 비중, 전체 수입액 대비 광산물 수입액의 비중을 각각 (%)로 표기

중국의 주요 대북 자원 투자 지역은 광종이 집중해 있는 단천지역, 평북(용등탄광: 무연탄), 양강도(혜산 동광), 함북(무산 철광) 등이며⁵⁾, 중국이 북한에 자원개발을 제의한 광종은 금광, 철광, 동광, 몰리브덴광 등으로 이는 남한의 10대 전략광종에도 포함되는 것이다.⁶⁾

4) KOTRA, 『2007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8. p. 13.

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영근, 「중국의 대북 투자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통일경제』 2008 여름호, pp. 58~69 참조.

6) 10대 전략 광종이란 남북의 광물 자원 수급 여건을 고려할 때, 상호 보완적인 광물 자원으로 분석되는 금, 은, 연, 아연, 철, 동, 몰리브덴 등 금속광물 7종과 중석,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등 비금속 광물 3종을 의미함.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우진, 「북한의 광물 자원 현황과 남북 협력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

< 중국의 대북 광물자원 개발 투자 >

	사업 내용
탄광 개발	- 중국 최대광물자원수출회사인 오광그룹이 평안북도 용등탄광 개발 합영에 조인 - 의마그룹, 북한 평안남도 안주지역에 1,000만 톤 생산량 규모의 탄광과 120만 톤의 석탄 화학 프로젝트 투자 MOU 체결
몰리브덴광 개발	- 림보광산개발유한공사가 평양시에 201만 달러 규모 투자 - 광수그룹은 평안남도 성천군 용흥광산에 605만 달러 투자
철광 개발	- 통화강철그룹, 연변천지공사, 중강그룹이 함경북도 무산철광 개발에 70억 위안(약 9억 달러)을 투자 - 투자 대가로 무산광산의 50년 채굴권 획득 - 한편, 이 사업은 북한측의 요청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
금광 개발	- 길림호용그룹유한회사와 중국유색국제광업주식유한공사는 북한 조선금강총회사와 금, 은 생산을 위한 조선금강광업합영회사 설립
동광 개발	- 산동국대항금주식유한공사는 북한 양강도광업사와 헤산청년 동광개발을 위해 헤산초금합영회사 설립(등록자본금 800 만 유로 50% 지분, 합영기간 25년)
제철소 설립	- 탕산강철그룹, 김책공업원 제철소에 투자

EU의 개발 현황

EU 기업들은 북한 광물자원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본격적인 자원 개발 투자에 앞서 간접 투자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대부분 자원개발펀드 및 관련 기업의 지분 인수 등을 통해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현재는 금융 및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투자에 앞선 간접 투자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북한 광물자원의 매장량 및 잠재가치를 고려할 때 중국의 경우와 같은 광산에 대한 직접 투자 등의 형태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EU의 대북 광물자원 개발 투자 >

국가별	내용
영국	- 앵글로 시노 캐피탈사는 북한 자원개발사업 투자를 위해 5천만 달러 규모의 '조선개발투자펀드' 조성(대동신용은행 지분 70% 인수)
프랑스	- Lafarge SA는 평양 상원시멘트사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이집트의 오라콤 시멘트회사 인수(오라콤사는 상원 시멘트 지분 50%를 매입하기 위해 1억 1,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합영 계약 체결)
독일	- 평안북도 동창광산의 형석 개발에 관심
스웨덴	- 함경남도 검덕광산의 아연 개발에 관심

Briefs』 Vol. 8, 2006. p. 9 참조.

기타국의 개발 현황

싱가포르는 합영회사를 설립하여 금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아시아투자그룹은 금광 개발을 위해 북한 흥성무역회사와 함께 금산합영회사를 설립하여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

< 싱가포르의 대북 광물자원 개발 투자 >

	사업 내용
금광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투자그룹은 북한 흥성무역회사와 금산합영회사를 설립(지분 50%) - 오스트리아에서 중고광산설비를 도입하여 금광 개발

3. 남한의 대북 광물사업 개발 추진 현황

남한의 대북 광물자원 개발 사업 추진 의미

우선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의 의미가 있다. 남한의 광물자원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북한은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 산업 원료 광물의 안정적 비축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투자 사업에 대한 판매권을 확보할 경우, 자원위기 시에도 광물 도입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광산투자로 사업수익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산업의 동반 진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외환 유입으로 북한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생산지에서 수요지까지의 수송 비용이 원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광물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남한과 인접한 북한에서 원료 광물자원을 공급하는 것은 경제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 개발 사업 투자시 장비산업, 토목건설 및 운송산업 등의 동반 진출 효과가 기대된다.⁸⁾

남한의 북한 광물자원 개발 사업 추진 현황

남한의 대북 광산물 수입 추이는 2004년 이후 증가하다가 2008년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남북교역액 가운데 남한의 반입액은 9억 3,225만 달러로 그

7) 배종렬,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수은북한경제』 2008년 가을호, p. 52.

8) 정춘 흑연광산 건설시 원진정밀, 효성전기, 국양해운 등 국내 기업 건설 및 운반 참여 사례가 있음. 최경수, 「북한 단천지역 광산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전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북한연구학회 공동 개최 세미나, 『신남북경협과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제』, 2007년 11월 23일 발표 자료 참고.

가운데 광산물 반입액은 9,97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남한의 대북 광산물 수입액 비중 추이 >

(단위 : 만 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교역액	72,422	69,704	105,575	134,974	179,790	182,136
남한의 반입액 (%)	28,925 (39.9%)	25,804 (37.0%)	34,028 (32.2%)	51,954 (38.5%)	76,535 (42.6%)	93,225 (51.2%)
남한의 광산물 반입액 (%)	1,714 (5.9%)	593 (2.3%)	2,922 (8.6%)	5,973 (11.5%)	12,780 (16.7%)	9,979 (10.7%)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주 : 전체 교역액 대비 수입액의 비중, 전체 수입액 대비 광산물 수입액의 비중을 각각 (%)로 표기

현재 광업진흥공사, 민간기업 등이 추진중인 북한 자원개발사업은 투자 5건, 계획 4건, 협의 5건 등 총 14건이다. 민간기업으로는 최초로 (주)태림산업이 2006년 4월 북한 개선총회사와 합영계약을 체결하고, 아리랑태림석재합영회사를 설립하여 석산(화강석) 개발 및 가공공장을 운영중에 있다.

< 남한의 대북 자원개발 사업 추진 현황 >

구분	추진업체	사업대상자	추진내용	투자 방식	기타
투자 (5)	광업진흥공사	삼천리총회사	- 정촌흑연광산개발	합작	- 60억 원 투자 - 2007년 북한산 흑연 550톤 반입
	태림산업	개선총회사	- 룡강석산(화강석) 개발 장풍석산 개발, - 개성석재기공공장, 판석공장 운영	합영	- 아리랑태림석재합영회사 설립 - 39억 원 투자(60억 원 추가 투자 계획)
	아천글로벌	신진무역총회사/ 조선진영무역회사	- 개성 및 해주 석산 (화강석) 개발 - 철광석, 내화벽돌 공장 건설 추진 계획	합작	- 250억 원 투자 예정 - 해주 원석 국내 첫 반입(2008.3.10)
	나우 코포레이션	민경련을 통한 사업대상자 다변화	- 무연탄, 흑연 이연 등 수입 - 텅스텐 선철 등 품목 추가 예정	합작	- 2007년에만 북한 광물 자원 12만 7천 톤(약 400억 원 규모) 수입
	서평에너지	명지총회사	- 남포에 석탄전용 대안부두 건설 중	합작	- 천성석탄합작회사 설립 - 20억원 투자
투자 계획 (4)	크레타 개발공사	조선명지총회사	- 해주 철광석 광산 개발 - 해주 석산 개발	합작	- 20년간 300억 원 투자 연간 500만 톤 철광석 반입 예정
	굿네이버스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 아연제련소 증설	합작	- 50억 원 투자 계획
	광업진흥공사	광명성총회사	- 풍천흑연광산 조사	미정	- 시추 탐사 계획
	광업진흥공사 · 원진	광명성총회사	- 아양석회석광산 조사	미정	- 2007년 9월 공동개발 의향서 체결
협의중 (5)	광업진흥공사	미정	- 단천시 연·아연· 마그네사이트 광산 개발	미정	- 2008년 '단천지역 3대 광산 사업타당성 평가' 실시
	남해화학	민경련	- 인회석 광산 개발	미정	- 남포 대대리광산
	대성자원개발	민경련	- 석회석 광산 개발	미정	
	원진	민경련	- 마그네사이트 광산 개발 - 가공공장 건설	미정	- 단천 용양광산
	포스코	민경련	- 무산광산 철광석 개발 - 제철소 건설 협의	미정	

자료 : 최경수, 「북한 단천지역 광산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전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북한 연구학회 공동 개최 세미나, 『신남북경협과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제』, 2007년 11월 23일 발표 자료 재구성.

4. 북한 광물자원 개발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

개발 현황

북한은 풍부한 매장량에 비해 광산에 대한 시설 투자와 기술지원의 빈약으로 생산량이 적으며, 2000년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⁹⁾ 북한의 금속 광물 생산량은 신규 광산의 개발 부진, 채굴의 심부화, 장비의 노후화, 전력 부족 등으로 1990년대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1990년부터 해외원조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둔화하였으며, 2000년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철광석 생산량은 1999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주요 비금속광인 흑연, 마그네사이트 등의 생산량도 국내외 환경 악화로 1990년대 이후 줄어들었으며, 2000년 이후 생산량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북한의 주요 금속광물 생산량 >

	1990	1994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금(톤)	5	5	4.5	2	2	2	2	2	2	2
은(톤)	50	50	45	40	40	40	20	20	20	20
동(천 톤)	15	16	14	13	13	13	12	12	12	12
연(천 톤)	80	80	70	60	60	60	12	13	13	13
중석(톤)	1,000	900	500	500	500	600	600	600	600	600
철광석(천 톤)	8,430	4,586	2,890	3,793	4,208	4,078	4,430	4,580	5,000	5,000

자료 : 1990년부터 2002년 자료는 USGS, Minerals Year Book 자료 재인용, 2003년 이후 자료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북한 광물자원 개발현황』, 2008 참고
 주 : 철광석을 제외한 모든 금속 광물은 금속 기준, 철광석은 광석, 정광 기준

< 북한의 주요 비금속광물 생산량 >

	1990	1994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흑연(천 톤)	35	40	35	30	25	25	25	30	30	30
마그네사이트 (천 톤)	1,500	1,600	1,500	1,000	1,000	1,000	1,200	1,000	1,000	1,000

자료 : 1990년부터 2002년 자료는 USGS, Minerals Year Book 자료 재인용, 2003년 이후 자료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북한 광물자원 개발현황』, 2008 참고
 주 : 철광석을 제외한 모든 금속 광물은 금속 기준, 철광석은 광석, 정광 기준

9) 정우진, 「남북 광물자원 협력방안」, 『에너지 포커스』 제2권 제8호, 통권18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10. pp. 24~25.

대북 광물자원 개발의 일반적인 문제점

대북 광물자원 개발 사업 추진 상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는 열악한 인프라, 북한 당국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태도와 법제상의 문제 등이 지적된다. 우선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북한 광물자원 개발의 수익성은 인프라 여건에 좌우된다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¹⁰⁾. 광산시설 노후화와 전력 부족, 철도 레일의 낙후 및 전력 공급 불안으로 인한 화차 운행의 불안정성, 접안시설 등 항만 인프라의 열악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광산 지역과 수출 항만과의 철도 수송 거리, 항만과 철도 설비 상황, 투자 대상 광산 지역 인근 발전소의 전력 공급 상황 등 전력, 철도, 항만 인프라가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북한의 폐쇄적 태도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태도와 당국의 간섭 및 정책 변화로 안정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아시아 최대 노천 광산이 무산 철광 광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개발 의지를 보이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북한이 이윤 분배 문제로 협상을 중단한 바 있다.¹¹⁾ 남한의 경우에도 남북간 진행되는 광물자원 개발 사업 협상에서 북한이 무리한 투자 담보금 제공을 요구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북한 법제상의 문제점도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다. 북한은 현행 헌법 제21조에서 광물자원을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장성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하자원법 제2조에서도 지하자원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일부 광물의 수출시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수출 규제 규정(동법 제40조)을 두고 있다. 또한, 지하자원법 제25조¹²⁾에 따라 투자자의 선별 채광이 인정되지 않아, 생산된 광물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에도 투자자의 사업 정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남한의 대북 광물자원 투자 장애 요인

남한의 경우, 남북 관계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투자 형태의 차별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남북간 경색 국면에 따라 사업 추진 환경이 악화되었으며 정춘 흑연 광산에서 생산된 흑연의 반입마저 중단된 상황이다. 반면, 중국과 북한은 북중 수교 60년을 맞아 올해를 북중 우호의 해로 정하고 활발한 정치 교류를 벌이고 있어, 북중

10) 정우진, 「남북 광물자원개발 협력방안과 과제」, 한국수출입은행 『수은북한경제』 2007년 겨울호, pp. 35~37 참조.

11) KOTRA, 『최근 북중관계 조망 - 경제적 관점에서 본 중국의 대북 위협론 해부』, 기획조사 06-007, 2006. p. 14 참조.

12) 제25조(채굴의 합리적 조직)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채굴기준과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이 되는 광체를 다 캐야 한다.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광체만을 골라 캐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간 정치적 요인은 오히려 대북 협력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투자 형태에 있어서도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작 투자 형태를 선호·제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합영 형태의 사업 추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합작 형태의 투자 요건에 따라 북한은 남한 투자자의 광산 개발 경영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춘 흑연 광산에 62억 원 가량을 투자한 광업진흥공사조차도 정춘 광산의 경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남한의 대북 광물자원 투자의 장애 요인 >

일반적인 장애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 시설 노후화, 전력 공급 부족, 항만과 철도, 도로의 낙후 - 북한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국의 간섭 및 정책 변화 - 북한 법제도상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관리 통제로 기업 활동 제약
남북간 특수 요인	정치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관계 경색으로 기 추진 사업도 중단된 상황(장애 요인) · 중국의 경우, 북중 우호의 해를 맞아 정치 교류 활발(촉진 요인)
	투자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참여 불인정으로 경영 성과 파악이 어려운 합작 형태 · 중국의 경우, 경영 참여가 가능한 합영 사업 합의가 주류

4. 정책 과제

북한 광물자원 개발 과제

첫째, 에너지 자원 외교의 대상국으로서 북한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확보 및 자원 선점 차원에서 남한의 북한 자원 개발 경험 확대 및 투자가 요구된다. 이명박 정부가 10대 중점 과제 중의 하나로 들고 있는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 자원 외교’의 대상국으로서의 대북 투자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남북한 광물자원 협력 사업은 일방적인 대북 지원이 아니라 남북 상생 공영의 사업이란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북한 광물자원은 수입 관세가 없으며, 수송비가 저렴해 개발의 경제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남북 자원개발협력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장단기 로드맵을 협의해야 한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합의사항인 ‘남북 자원개발협력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관련 법제도 구축과 북한 광산 개발 정책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은 주

요 지역에 대한 설비 및 인프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한 후, 이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의 로드맵 작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합의 사항의 재검토를 통한 우선 전략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북한 지하자원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재점검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 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은 단순한 바터형식의 교역(구상무역)에서 벗어나 폭넓은 남북간 산업 협력으로 연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¹³⁾ 특히 북한은 석탄과 광물 등 지하자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철저한 관리 통제를 요구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 남한은 북한과의 긴밀한 협의에 의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 민자 출자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통해 북한과 합영회사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광산 및 석유, 금광, 해사 같은 광물의 굴진과 선광 능력 등을 갖춘 북한 광물회사와 북한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남북한이 공동 설립한 합영기업 형태로 추진하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광산개발권을 인수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재원 조달은 북한 자원 개발 펀드 등 국내 PF 조성 및 국제 인프라 펀드 유입, 정부 지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북한 자원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대북 투자 사업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원 조달은 물론 사업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중국, EU와의 국제컨소시엄 구성도 검토할 수 있다.

13) 이석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대북 경공업 원자재 지원”, 『e-KIET 산업정보』 2007. 7. 3